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포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여호수아의 준비 I

(여호수아 1:1 - 11)

원로목사이종윤



나라가 어려울 때 진정한 지도자가 그리워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 -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나 심고 물 주는 일에 인간의 수고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100% 하신다. 동시에 인간이 100% 해야 한다. 그래서 신자의 생활에는 ‘100%+100%=100%’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본문에 보면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했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1절).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대행진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다.

초대교회 안에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한 것이 베드로나 바울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어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사건 이후 아말렉 군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 하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다. 모세가 죽은 후 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입성케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일을 했다.

오늘 우리 민족 사회와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준비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요행이요 횡재라 할지 모르나 미래를 위해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은 위험하고도 불행한 일이다.

I.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 (2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도 옛 사람이 죽어야 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과거의 사람은 십자가 밑에 장사지내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자기 정당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으라는 것이다.

아직도 죽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이 내게 남아 있는가? 교만하던 아담의 죄, 시기하던 가인의 죄, 불신의 배신의 가룟 유다와 같은 죄, 소돔과 고모라의 음욕과 사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 하만 같은 음해와 모략의 죄, 이스라엘 백성같은 우상 섬기는 죄...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만 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될 인물이 옛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격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 옛 사람을 장례 지내야 한다.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II.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을 멸해야 했다 (3 - 4절)

가나안 7족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나안 7족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을 괴롭히는 가나안 7족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신앙(不信仰)이요 불의(不義)요 불충(不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웃도, 교회도, 형제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대에 살고 있다.

거짓과 욕심, 자기 사랑,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으로 가득한 불의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치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말은 이론일 뿐 자기에 조그만 해로우면 성난 사자처럼 거칠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듯 안으로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고, 밖으로는 우리를 해하려 하는 가나안 7족과 같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한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

2월 10일(토) 오후 3시~5시, 웨스트민스터홀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2월 10일(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있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이다.

금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하루 한 기 금식하며 기도한 후 2월 10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한다. 모든 성도들은 이번 기도회에 동참하여 깊은 회개와 간구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 바란다.

<기도회 일정>
3:00~3:30 찬양
3:30~3:50 말씀
3:50~4:15 기도회 I
4:15~5:00 기도회 II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영재 전용순 송인덕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2월 세례식

신청 마감: 2월 4일(주일) / 602호

금년도 첫 세례식인 2월 세례식이 2월 18일(주) 찬양예배 시에 있다.

- 2월4일(주)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2호)
- 2월11일(주) 문답총정리는 오후1시 602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란다.
- 2월11일(주) 문답은 오후2시 602호에서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10-2376-3892로 문의바람

사무국장 유태서 집사 병가

당회는 사무국장 유태서 집사에게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병가를 허락하였다.

농어촌 100교회운동 · 비전2020운동 후원현황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비전2020운동 후원자

- 마리아(2)
- 스테반회(1)
- 1교구 : 정철웅(1)
- 3교구 : 박미현(2) 송인권(1) 김형상(최금숙)(1),
- 5교구 : 류충기(김복희)(1/2)
- 8교구 : 이봉선(1)
- 15교구 : 정준혜(1/2),
- 16교구 : 박찬희(1/2) 노병희(방덕자)(2)

(다음 주 계속)

- 샬롬권사회(5)
- 한나여전도회(3)
- 1교구 : 김애리(1)
- 3교구 : 김형상(최금숙)(1) 주성숙(1)
- 5교구 : 이화숙(1) 임범창(1)
- 8교구 : 이봉선(2)
- 9교구 : 김경숙(1) 나기태(1) 나상민(1)
- 11교구 : 이옥희(이홍기)(1) 장석남(2) 조정옥(1)
- 12교구 : 신동기(1) 이건희(1) 이용자(1)
- 14교구 : 김종자(1) 박진희(1)
- 16교구 : 노병희(방덕자)(10) 홍영미(1)

(다음 주 계속)

성경을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이해하자

요즘 서울교회에 성경읽기 바람이 조용히 일고 있다. 다락방끼리, 부서끼리, 또 개인적으로 성경1독을 목표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만 나던 지난 몇 년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성도들은 이즈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생명을 마시며 영적 목마름을 해소 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통독을 할 때 많은 지명과 지리적 설

명을 접하게 된다. 그럴때마다 성경책 뒤의 지도를 뒤적이거나 프린트를 해서 보더라도 꿈꿈이 되짚지 않으면 연결해 내기가 쉽지 않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은 윤곽이라도 있지만 처음 성경을 접한 성도들은 성경 목록에 맞춘 체계적이고 쉬운 지도가 있었으면 할 것이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에 이 세가지의 공부해야 한다. 문화적인 영향하에 지금도 실재하는 땅을 토대로 쓰여진 역사의 증거(testament)가 구약과 신약이기 때문이다. 지명과 산지와 평지와 광야를 짚어가며 읽노라면 그 시대와 더 가까이 생동감 있게 따라 입을 수가 있다.

'성경20 쉬운지도'는 성경통독을 위한 초신자에 맞춘 68장의 핵심지도를 담은 책이다. 이번 '전성도 성경읽기'를 할 때 성령의 조명

하에 성경지도의 밑그림이 그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혹시라도 아직 성경통독을 시작하지 못한 분도 이제 2월이 시작되니 몇일만 부지런히 읽는다면 무난히 진도를 따라갈 것이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서울교회와 성도들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바란다.

김애리 집사(편집부)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2월 4일	주일	레위기 8~10		여호수아 1~7	
2월 5일	월	레위기 11~13		여호수아 8~13	
2월 6일	화	레위기 14~15		여호수아 14~19	
2월 7일	수	레위기 16~18		여호수아 20~24	
2월 8일	목	레위기 19~20		사사기 1~6	
2월 9일	금	레위기 21~23		사사기 7~11	
2월 10일	토	레위기 24:1~26:2		사사기 12~18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점령(요단강 서쪽) -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참고



토요일 아침이 행복합니다

을 초 서울교회 협동목사로 부름을 받은 심우진 목사는 청년1부와 청년2부 지도를 맡고 있다. 심우진 목사를 중심으로 청년 1, 2부가 올 한 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청년 1부, 청년 2부



심우진 목사님 가족 - 공나형 사모, 아들 심기찬 군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빵을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아쉬움을 느끼기는커녕 점점 마음의 배가 불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질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며 강의하는 학자라서 너무 길게 하면 청년들이 지루해 할까봐 짧게 하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었는데 청년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질문에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청년들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나는 내가 어디에 와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곳, 바로 그곳에 와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좋아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선택했고, 신학의 여러 전공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신약성서학을 선택하여 공부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학교와 학회에서 성경말씀에 대한 토론을 해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보게 되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성경공부에 임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말씀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순수 이성(reine Vernunft)과 실천 이성(praktische Vernunft)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적용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겠지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지난 30여년 동안 해 온 이 일을 이제는 사랑스럽고 든직한 청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바로 이 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청년부 사역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며 상처를 치유해나가고, 이 사회에서 기독청년답게 신앙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이 팍팍해서 커피까지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베이커리 빵이면 족합니다. 아침에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먹음직스런 빵, 그리고 말씀. 토요일 아침이 행복해졌습니다!

1월 초부터 토요일마다 청년 1·2부 다락방장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낯설음을 느끼기도 전에 큰 감동부터 밀려왔습니다. 보기도 먹음직스러운 베이커리 빵이 탁자 위에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모이기 때문에 식사를 거른 청년들이 있다며 분주하게 빵을 나누어 놓는 손길이 참 따뜻해보였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나는 성경공부를 인도하느라 계속

청년1, 2부 연합 겨울수련회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임종현 집사 (청년 2부 회장)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아가페타운에서 3일 간 청년 1부와 2부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매년 모든 부서가 때가 되면 가는 연례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항상 2월과 8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수련회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련회가 다 같지 않습니다.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과 순서로 흘러가는 수련회일지라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각자가 마음 속에 잊지 못하는 수련회가 다 다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으니 가야하는 수련회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야만 하는 수련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무게와 녹록치 않

은 영적 싸움에서의 상처, 기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주변의 지인들, 국가의 대내외적인 갈등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가 현재 견디고 있는 시련까지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기도의 제물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떠올려보면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하는 입술조차 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고 서로 위로하기 원하며 같이 힘이 되어 주길 원합니다. 함께 손 잡고 같이 바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어쩌면 함께 라서 조금 더디고 느릴지도 모르겠지만 서로가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임을 확인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가 청년부원들 각자에게 어느때와 다른 수련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청년1, 2부 연합 겨울수련회

뜨겁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조재석 성도 (청년 1부 회장)

능력없는 저희를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가 아가페타운에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떠나간 청년들이 있어 이전보다 적은 인원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지만, 그렇기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변 시선 신경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갈 때, 그 대가 없는

사랑을 체험할 것이고 더 나아가 사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교회를 멀리했던 청년들이 진심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다시금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세상 속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심우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학업과 직장에 얽매어 있고 있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써 세상 살아가는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울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초등부 연합 겨울 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는 매년 기다려지는 보물찾기!!



임리임 (초등부 4)

나에게는 8살, 6살인 남동생 두 명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가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나에게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동생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너무나 반가운 기회였습니다. 그것도 이박 삼일 동안이나!

친한 친구가 없어서 조금은 기운이 나지 않았지만 버스에서 같은 학년 친구와 앉게 되어 기분이 좋아졌고 아가페타운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넓은 교실, 맛있는 간식과 식사, 포근한 침대, 슈퍼맨으로 변신하신 전도사님의 재밌는 성경말씀, 따뜻하게 보살펴주신 선생님들, 돌팻 날 가졌던 눈썰매 체험 등 아가페타운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간 순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마지막 날의 세족식은 힘들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오자 엄마는 내게 이것 저것 물으셨습니다.

"라임아! 혹시 세족식 시간에 전도사님과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안아주실 때 가슴속에서 뭔가 몽클하고 눈물이 날 것 같구~ 막 감동적이고 그런 거 못 느꼈어?"

"아니요.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발은 정말 따뜻하고 좋았어요."

엄마는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말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내내 외웠던 말씀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은 것처럼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흥얼흥얼 흘러나오고 내 입술의 말씀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보석 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2장 2절)

동생들에게 해방되고 싶어서 갔던 겨울성경학교가 매년 기다려지는 보물찾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동생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군복무자 · 입대 예정자 기도회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30/802호

자녀가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 예정인
모든 성도 ·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중 ·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 (2부예배 후, 504호)

중 · 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손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동정

■ 연주회: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 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2018 NEW YEAR'S CONCERT 오페라 갈라콘서트 2월 22일(목) 오후 7:3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을 원하는 성도는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 바랍니다.

■ 금주의 식사: 2교구 이효상 집사 (이응선 원로장로의 차남)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금주 수요일에 개강하는 다락방 리더 훈련에 모든 다락방 리더들이 참석하여 맡겨주신 다락방원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2. 2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3. 2월 10일(토)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2월 7일(수), 웨스트민스터홀

상반기 다락방 리더 훈련을 2월 7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개강한다. 다락방 리더들은 전원 참석 바란다.

다락방 개학은 2월 9일(금)이다.

교회 주차장 사용 안내

수요일예배, 찬양예배 후 신속한 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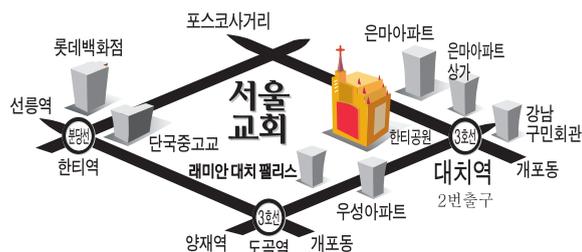
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 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위원들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주차하고 있다.

다만 수요일예배와 주일 찬양예배가 끝난 후 주차장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먼저 지상으로 옮겨주시기 바란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